

4/16/23

설교 제목: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스가랴 2 장 1-13 절

- (속 2:1)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 (속 2:2)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절관주** 계 21:16
- (속 2:3)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절관주** 속 1:9
- (속 2:4)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절관주** 겔 36:10, 겔 38:11
- (속 2:5)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절관주** 시 46:5
- (속 2:6)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 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절관주** 렘 3:18, 신 28:64
- (속 2:7)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 (속 2:8)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 (속 2:9)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절관주** 사 19:16, 속 2:11
- (속 2:10)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의 딸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 (속 2:11)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 (속 2:12)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절관주** 신 32:9, 시 33:12
- (속 2:13)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비록 포로 신분이긴 했지만 70 년을 터잡고 살았던 바벨론을 떠나 황무지가 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렸으며 그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다음 해에는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 공사는 사마리안인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문제를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처음 열정을 잃어버리고 성전 재건을 16 년째 미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 그들이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신앙을 일깨우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여덟 가지 환상 중 세 번째 환상입니다.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환상으로 측량사, 처음 스가랴에게 말한 천사,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의 번영과 성장, 그리고 회복에 관한 예언인데, 약속되고 있는 축복과 회복의 범위가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넘어서 메시아 시대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친 환상을 통해 성전 재건에 확신을 갖게 된 스가랴가 기도 중 측량줄을 손에 잡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는 한 소년의 환상을 봅니다.

(슥 2:1)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슥 2:2)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한다는 것은 곧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이루어야 하는 목적과 동기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회복이 어떤 소수의 사람들의 비전이나 민족주의적인 편협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하였으며, 따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스가랴에게 말해 주던 천사가 떠나고 다른 천사가 나타나 스가랴에게 말합니다.

(슥 2:3)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슥 2:4)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스가랴는 솔로몬 성전을 본 적은 없었지만 이야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 속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하는 성전의 모습은 스가랴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스가랴는 스킵바벨에 의해 지어지는 제 2 성전을 생각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몸된 성전과 그 분의 재림으로 인해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당장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중까지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한 순간 한 순간 끊어서 보지만 그 분은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는 발 앞에 떨어진 불만 끌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근원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과 영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먼저 천사는 회복될 예루살렘의 성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 임할 번영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람과 짐승이 넘치게 될 것이라는 말은 겨우 49,897 명의 사람들로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점점 확장되어질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할 때 소수로 시작되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일이 우리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사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은 우리의 사역을 위축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신이 번영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말은 예루살렘에 임할 평화를 뜻합니다.

이제까지 예루살렘에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건될 새 예루살렘은 모든 원수로부터의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와 안식만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또한 천사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슥 2:5)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예루살렘은 강대국들에 둘러 쌓여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전쟁의 불안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곽이 적의 공격으로 쉽게 무너지는 돌이나 흙으로 만든 성곽이 아닌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로 둘러싼 성곽이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불 칼로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 성읍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평화의 도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의 귀환을 촉구하시며, 그 이유로 바벨론에 임할 심판과 예루살렘에 임할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바벨론에 임할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로의 귀환을 포기하고 바벨론에 안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곳에서 도피하라고 하십니다.

(슥 2:6)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 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슥 2:7)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를 끼친 열방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니 그곳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귀환을 포기한 채 현실에 안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경각심을 주었고,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던 자들에게는 잠잠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보다 현실의 안락함에 안주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경각심을 줍니다.

우리는 없어질 세상의 영광과 편안함에 취해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을 해한 나라들로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략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숙 2:8)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숙 2:9)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당신의 눈동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앗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셨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다스려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였지 그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셔서 멸망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함으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긴 하셨지만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해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앗수르와 바벨론은 자신들이 심판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교만과 포악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원수를 갚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고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결국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원수들을 보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렘 29:11)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렘 29:12)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렘 29:13)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렘 29:14) 이것은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에 임할 축복입니다.

회복될 예루살렘과 확장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금 거처를 정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슥 2:10) 여호와와의 말씀에 시온의 딸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슥 2:11)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루어졌고 재림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그 날은 여호와와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에 멈추지 않고 만민에게까지 이르러 만민의 회복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확장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머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소유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실 것임을 밝히십니다.

(슥 2:12)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거룩한 땅은 가난한 땅을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와 주권이 미치는 땅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행하기 위해 일어나실 것이니 모두 잠잠하라고 합니다.

(속 2:13)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이 처소에서 일어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잠자는 것 같이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꿈과 희망에 부풀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낙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만을 믿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나 생각과 달리 여러 난관에 부딪혀 좌절하고 낙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번영과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해한 열방에 대한 보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당신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이행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거룩한 땅에서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히 오시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에는 현실의 벽이 만만치 않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의 핍박으로 많은 시간을 좌절하고 낙망하며 보냅니다.

때론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속에서 흘러가는 대로 삽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바벨론의 끝, 곧 세상의 끝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당신이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당신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번영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불성곽으로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